

『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』

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 고민하다가 20세기가 낳은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교육가인 라인홀드 니이머(Reinhold Niebuhr)의 『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(Moral Man and Immoral Society)』를 추천하기로 했다.

먼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도덕성(심지어 도덕불감증에 걸린 사람도 많다)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때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니이머는 이 책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양극단을 전제하고 이 양자를 종합하여 개인적 도덕과 사회적 도덕이 양립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소위 변증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.

이 책에서 니이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나 일단 집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 집단-사회나 국가-은 비도덕적 경향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. 따라서 사회집단이나 국가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감행한다는 것이다. 니이머는 1932년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 동안의 시대변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. 집단의 비도덕적 경향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집단(사용자 집단, 노동자 집단, 정부의 각 부처 등)이기주의의 형태로 극명하게 나타났다.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가내 집단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이기주의로도 표출됐다. 정치·외교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분야에서도 EC(유럽공동체)나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등 경제의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.

한편, 한 국가나 사회집단의 비도덕성은 개인의 윤리적 기준(이성)에 의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이나 비폭력적인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(후자가 전자보다 분명히 낫다) 이러한 해결책은 또 다른 집단의 비도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결부돼야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.

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혁은 '국민적 정서'라는 명분만으로 사회의 비도덕성이 수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끝으로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